

# 애착과 신체화의 관계에 대한 자기개념 변인의 매개효과

김 용 희

경희의료원 신경정신과

본 연구는 애착유형과 신체화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변인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성인남녀 147명(남 61명, 여 8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애착유형 중 불안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신체화 호소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안애착과 신체화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변인들의 매개효과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정서적 안정성 요인이 이 두 개념을 완전매개하는 변인으로 나타나 불안애착은 정서안정성을 통해서 신체화 현상이 증가되는 것이 시사되었다. 이외에도 대인신뢰감, 자기존중감, 문제해결, 자기개념총합이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안 애착과 자아개념, 신체화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신체화, 불안애착, 자기개념, 정서적 안정성,

신체화란 기질적인 손상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경향을 말하며, 이는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서도 자주 관찰된다. 이들은 흔히 불면증, 근육통, 소화불량, 피로감, 현기증 등 다양한 신체증상을 호소하는 데 특히 모호하고 자세하게 자신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흔하다. 일반적으로 신체화는 심리적 불편감을 신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가정하는데(Katon, Kleinman & Rosen, 1982), 이로 인해 타인을 조종하거나, 책임이나 의무를 면제당하거나, 경제적인 보상을 받거나, 타인의 동정이나 관심을 받는 등의 이차적 이득이 뒤따를 때 더욱 강화된다(Ford, 1986)고 하여 심리적 문제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책략 중의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Scicchitano, Lovell, Pearce, Marley, & Pilowsky, 1996).

신체화 증상은 정신과에서 신체화장애를 비롯하여 우울증, 불안장애 및 성격장애와 같은 다양한 질환이 공존하는 경우가 흔하다(Bridges & Goldberg, 1985). 이기련과 이영호(2002)는 신체화 환자들은 기분장애 환자들에 비해 신체증상에 더 많이 집착하며, 자신에게 신체적 이상이 있다고 확신하고 그로 인한 불편감을 크게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기분장애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체형 환자들이 건강 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문미희와 최정운(1996)은 신체화 집단이 비신체화 집단에 비해 신체화, 해리, 투사, 행동화의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하며, 유머와 승화 기제는 적게

사용한다고 밝히면서, 이들은 과민하고 불안정하며 의존적인 방어기체에 많이 의지하는 반면 성숙한 방어기체는 적게 사용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신체화와 우울(Sherman et al., 2004), 불안, 분노감(Phillips, Siniscalchi, & McElroy, 2004), 정서조절(Waller & Scheidt, 2004),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감정표현불능증(Escalona, Achilles, Waitzkin, & Yager, 2004)과 같은 다양한 주제들과 관련지어 연구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신체화를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심리기체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편으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Schur(1955)에 따르면,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운동이나 언어 능력이 부족하여 정서적인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단지 미분화된 신체적 표현(undifferentiated physical expression)만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성장하게 되면서 이러한 미분화된 신체표현에서 벗어나(de-somatized) 정서적인 고통에 대해 언어화할 수 있지만, 정신적 외상이나 박탈, 발달적 실패 및 기타 좋지 못한 경험을 통해 퇴행하면 다시 신체화하려는 상태(re-somatizing state)로 회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태는 정서적인 디스트레스를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신체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Scheidt와 Waller(1999)는 영유아기 애착경험이 성인의 신체화 경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 중에서도 애착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체화 장애는 개인의 일생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발달적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애착 요인과 관련지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애착(attachment)이란 영아가 양육자와의 밀착된 정서적 유대감을 뜻하는 것으로, 영아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경험일 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친 정서, 인지, 사회성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오랜 시간에 걸쳐 양육자와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심리적 표상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반응을 예상하고 상황을 해석하게 된다. 이는 개인의 독특한 인지도식으로서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이라고도 한다(Kiesler, 1996). 더욱이 한 개인의 애착유형은 영아기에서 시작되어 아동기, 청소년기 및 성인기에까지 비교적 일관성있게 유지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애착 행동은 유아에 국한되지 않고 성인에까지 널리 확장되어 연구되고 있다(이은정, 2001). 성인애착의 유형은 대개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으로 구분할 수 있다. Hazan과 Shaver(1987)는 성인의 애착 유형을 안정(secure), 불안(anxious), 회피(avoidant) 애착으로, Collins와 Read(1990)는 친밀(secure), 의존(dependent), 불안(anxious) 애착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안정애착 유형은 타인과 비교적 쉽게 사귄 수 있고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타인이 자신에게 의존할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특징 지워진다. 회피애착 유형을 가진 개인은 타인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어려우며 오히려 타인과 가까워지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물론 자신에게 지나치게 가까워지려고 할까봐 걱정한다. 불안/양가 애착 유형의 경우는 타인과 지나치게 가까워지기를 원하나 자신이 원하는 만큼 타인이 자신과 가까워지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동시에 타인이 자신을 보살펴주지 않는다고 불평한다(Ainsworth, Belehar, Waters, & Wall, 1978).

애착과 정서 조절능력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Tasca, Taylor, Ritchie, & Balfour, 2004) 불안정한 애착유형을 가진 개인일수록 정서조절능력이 떨어진다(Waller & Scheidt, 2004).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은 양육자가 아동을 신체적으로 돌보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아주기(containment)를 포함한다(Bion, 1959). 따라서 안정된 양육자는 아동의 부정적 감정상태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반영해 줌으로써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부정적 감정상태를 잘 인식할 수 있게 되고, 감정적 표현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의 감정 조절능력이 발달하게 된다(Fonagy, Gergely, Jurist, & Target, 2002). 반면 불안정한 애착과정은 양육자와 아동간에 이러한 감정적 반영이나 수용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게 된 것으로, 불안정 애착아동은 성장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거나 표현하는 조절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편 신체화 증상은 자신의 감정을 명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정서적 각성에서 오는 신체증상이나 다른 정상적인 신체감각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종종 신체적 질병의 신호로 잘못 해석하고(Barsky & Klerman, 1983), 주로 우울, 불안과 같은 감정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많이 발생한다(Phillips, Siniscalchi, & McElroy, 2004). 따라서 애착과 신체화 증상은 서로 관련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이전 연구들은 주로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의 직접적인 신체질환을 가진 사람의 애착유형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신체질환자들의 치료 순응도, 치료자와의 관계, 예후를 알아보았다. 즉 불안정한 애착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치료의 순응도나 예후가 좋지 못하였다(Ciechanowski et al., 2001). Waller, Scheidt와 Hartmann(200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불안정 애착을 가진 환자일수록 신체화 경향이 많은 편이며, 거부형 애착유형이 집착형 애착유형보다 신체화호소가 더 많았다. 하지만 신체화 환자와 애착과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시도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개념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위의 연구결과들을 감안해 볼 때, 안정애착을 형성한 사람보다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사람일수록 여러 가지 면에서 상황을 불리하게 지각하거나, 자아상이나 타인상이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이 애착과 자기개념간의 연구에 집중되어 온 점을 고려해 보면(장휘숙, 1997; Feeney, Noller & Patty, 1993), 이 두 개념간의 관련성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Collins와 Read(1990)도 안정 애착을 형성한 사람일수록 불안정애착집단에 비해 높은 자기 가치감과 사회적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애착과 특정행동 사이에 자아개념의 매개적 역할에 대해 연구한 장휘숙(1997)은 인생 초기에 애착경험으로 인해 형성된 개인의 내적 작동모델은 전 생애 동안의 발달과정에서 가장 먼저 형성되는 자기개념이나 특성에 영향을 주고 자기개념은 다시 후속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애착은 자기관련 변인에 영향을 주고, 자기개념변인은 정신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김지현(1999)의 연구에서도 애착과 자기개념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아존중감이나 자기개념과 높은 상관이 있었다. 자기개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왔다. 또한 정신건강의 많은 부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로 이해할 수 있어서 근본적인 심리적 요인을 밝히는 데 애착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러한 두가지 중요한 개념으로 상정된 애착과 자기개념 변인들간의 관계를 통해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신체화 경향과 애착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비롯하여 애착과 연관된 자기개념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기개념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신체화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 방 법

### 연구대상 및 절차

서울 oo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부탁하여 그들의 부모나 친척에 해당하는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1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들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사례(모두 같은 항목에 답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많은 경우) 10명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은 14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남자 61명, 여자 86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39.46세(SD=13.41)로 20대 42명(25.1%), 30대 48명(28.7%), 40대 27명(16.2%), 50대 32명(19.2%), 60대 15명(9%) 이었다. 학력은 무학 8명(4.8%), 초졸 8명(4.8%), 중졸 43명(25.7%), 고졸 84명(50.3%), 대졸 20명(12.0%) 이었다. SCL-90-R의 신체화척도의 경우 T점수 60점 이상은 51명(34%), 50-60점은 44명(29%), 50점미만은 52명(35%)이었다.

## 도 구

### 성인 애착 질문지(RAAS: Revised Adults Attachment Scale)

Hazan과 Shaver(1987)가 사용했던 애착유형에 대한 기술문을 근거로 하여 Collins와 Read(1990)가 제작한 '성인애착 척도'이다. 본 척도에서는 애착 차원을 애착-의존(dependence), 애착-친밀(close), 애착-불안(anxious)의 3차원으로 분류하여 측정한다. 타인과 친밀한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를 묻는 친밀성 문항 6개, 필요할 때 타인에게 의존이 가능한지를 묻는 의존가능성 문항 6개, 대인관계에서 버림받거나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정도를 묻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애착-의존 척도는 상대방에 대한 보다 일방적인 믿음의 정도인 반면, 애착-친밀척도는 나와 상대방의 상호작용적 특징에 보다 초점을 둔 양방향적인 면에 중점을 둔 것이다. Collins와 Read는 검사-재검사 신뢰도에서 친밀, 의존, 불안 척도 각각 .68, .71, .52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은정(200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계수  $\alpha$ 는 각각 .54, .54, .51로 나타났다.

### 성신 자기개념 질문지

김정규(1999)가 Deusinger(1986)의 '프랑크푸르트 자기개념 검사'와 Battle(1992)의 'Culture Free Self Esteem Inventory'에 근거하여 새롭게 제작한 질문지이다. 이 검사는 총 86문항으로 자기존중감(self-esteem),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대인관계능력(interpersonal relationship), 문제해결능력(problem solving), 대인신뢰감(interpersonal trust)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방식의 6점 척도이다.

자기존중감척도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인식, 신뢰감, 자신감,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도 등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정서적 안정성은 감정의 기복과 예민성을 측정하는 것이며, 대인관계 능력 척도는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을 능력의 여부를 보는 것이다. 문제해결척도는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과 관련된다. 대인신뢰감은 평소 대인관계에서의 신뢰감의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자기개념 전체의 계수  $\alpha$ 는 .96, 자기존중감 .91, 정서적 안정성 .82, 대인관계능력 .87, 대인신뢰감 .86였다.

### 간이 정신 진단 검사(SCL-90-R) 신체화척도

이 척도는 김광일, 김재환 및 원호택(1994)이 제작한 척도로 개인이 호소하는 임상증상들을 9개 하위차원에서 측정하는 9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5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화 척도(12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신체 증상들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계수  $\alpha$ 는 .90였다.

## 결 과

Baron과 Kenny(1986)는 회귀분석 시 독립변수가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beta$ 계수가 매개변인 추가시 유의한 수준에서 무의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에 완전 매개(full mediation),  $\beta$ 계수가 감소하기는 하나 유의미 수준에서 무의미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부분 매개(part mediation)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및 매개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즉 독립변인인 애착 유형 중 불안 애착만이 신체화와 관련성이 있었고( $r=.37, p<.001$ ), 친밀애착과 의존애착은 신체화와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불안 애착만을 독립변인으로 선택하여 매개변인인 자아개념의 하위요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을 때, 불안애착은 모든 자아개념하위요인들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자기존중감,  $r=-.43, p<.01$ ; 정서적안정성,  $r=-.47, p<.01$ ; 대인관계,  $r=-.39, p<.01$ ; 문제해결,  $r=-.44, p<.01$ ; 대인신뢰,  $r=-.58, p<.01$ ; 총합,  $r=-.56, p<.01$ ).

그리고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자아관련개념과 신체화와의 관련성에서는 대인관계능력을 제외한 자기존중감( $r=-.36, p<.01$ ), 정서적 안정성( $r=-.43, p<.01$ ), 문제해결( $r=-.35, p<.01$ ), 대인신뢰( $r=-.39, p<.01$ )와 신체증상이 각각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표 1. 척도별 상관분석표

	1	2	3	4	5	6	7	8	9	10
1.애착-친밀	1.00									
2.애착-불안	-.50**	1.00								
3.애착-의존	.27**	-.14	1.00							
4.자기존중감	.26**	-.43**	.35**	1.00						
5.정서적안정성	.37**	-.47**	.27**	.62**	1.00					
6.대인관계능력	.42**	-.39**	.21**	.54**	.53**	1.00				
7.문제해결	.24**	-.44**	.13	.67**	.64**	.66**	1.00			
8.대인신뢰	.35**	-.58**	.34**	.70**	.67**	.65**	.76**	1.00		
9.자기개념-총합	.38**	-.56**	.29**	.85**	.81**	.80**	.88**	-.35**	1.00	
10.신체화	-.90	.37**	-.01	-.36**	-.43**	-.10	.89**	-.39**	-.40**	1.00

\*p <.05    \*\*p <.01    \*\*\*p <.001

독립변인인 애착유형 중 불안애착만이 신체화 현상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 불안애착, 자아관련개념, 신체화의 관계가 조건 3과 조건 4에 부합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신체화에 대한 불안애착과 정서적 안정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Beta	R <sup>2</sup>	F
불안애착	.21	.09	2.00
정서적 안정성	-.30	.20	-3.11**
전 체		.31	12.39***

\*\*p <.01 \*\*\*p <.001

표 2와 같이 자아개념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안정성을 통제하고 불안애착만을 분석에 포함시켰을 때, 불안애착과 신체화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으나 불안애착을 통제하고 정서적 안정성을 포함시켰을 때 정서적 안정성이 신체화를 11% 설명할 수 있었다. 즉 조건 1,2와 조건 3,4를 모두 충족시키는 변인은 정서적 안정성으로 나타나, 정서적 안정성이 불안애착과 신체화 사이를 완전히 매개하는 변인으로 제시되었다. 자아관련개념의 하위요인 중, 자기존중감, 대인관계, 문제해결, 대인신뢰는 불안애착을 통제했을 때,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개념을 완전히 매개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완전매개가 나타나지 않은 자아관련 개념들도 불안애착이나 신체화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의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Baron & Kenny, 1986).

표 3~6에서 보듯이 자아관련개념 중 대인관계를 제외하고, 대인신뢰감, 자아존중감, 문제해결, 자아개념총합이 불안애착과 신체화를 설명하는데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불안애착과 관련하여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친 영향도 유의하였다. 그리고 처음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설명해주는 2단계보다 매개변인을 추가하였을 때의 변화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대인신뢰감, 자아존중감, 문제해결, 자아개념총합이 불안애착과 신체화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표 3. 대인신뢰감의 불안애착과 신체화의 부분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eta
신체화	불안애착	.37***
대인신뢰감	불안애착	-.58***
신체화	대인신뢰감	-.26***
	불안애착	.22**

\*\*p <.01 \*\*\*p <.001

표 4. 자기존중감의 불안애착과 신체화의 부분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eta
신체화	불안애착	.37***
자기존중감	불안애착	-.44***
신체화	자기존중감	-.26**
	불안애착	.26**

\*\*p <.01 \*\*\*p <.001

표 5. 문제해결의 불안애착과 신체화의 부분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eta
신체화	불안애착	.37***
문제해결	불안애착	-.45***
신체화	문제해결	-.23**
	불안애착	.27**

\*\*p <.01 \*\*\*p <.001

표 6. 자아개념(총합)의 불안애착과 신체화의 부분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eta
신체화	불안애착	.37***
자아개념총합	불안애착	-.57***
신체화	자아개념총합	-.28**
	불안애착	.24**

\*\*p <.01 \*\*\*p <.001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애착의 유형과 신체화와의 관련성 뿐만 아니라, 자기개념변인들을 매개모델로 상정하여 이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애착 유형과 신체화와의 관련성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자아개념에 따라 신체화에 기여하는 매개경로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애착의 유형 중에서 친밀 애착과 의존 애착은 신체화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안애착이 가장 신체화와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친밀한 정도나 의존가능성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애착으로 분류하고, 친밀, 의존 가능성이 낮고 불안감이 클수록 불안정 애착으로 분류하기 때문에(Collins & Read, 1990), 불안정한 애착으로 분류되는 불안 애착유형일수록 신체화경향이 크다는 것은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애착과 정신병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나, 일반적으로 안정 애착이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병리에 대한 보호요인이며, 불안정 애착은 반대로 위험인자로 인식되고 있다(Collins & Read, 1990). Dozier, Stovall과 Albus(1999)은 많은 정신장애가 애착의 구성요소 중 비자율성, 불안정한 정서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회피성 애착자들이 신체증상을 많이 호소하고 실제로 질환에 많이 걸린다는 결과도 있다(Eagle, 1999).

불안애착자는 부모의 비일관적인 양육방식으로 인해 자신이 원할 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할 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세상을 탐색하는 데 불안감을 느낀다고 한다(Collins & Read, 1990). 이들의 부모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 부정적 표상의 혼재와 관련되므로, 이 유형의 사람은 친밀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에서 강한 정서적 기복을 보인다(김민동, 2003). 일반적으로 신체화장애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신경증적 장애나 성격장애와 공존하는 경향이 흔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대인관계에서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본 연구에서 불안애착과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대인관계에서의 불안감이 신체화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이 나타났다.

애착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일반적인 도식이어서 애착 양상에 따라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달라질 것임을 예상하는 것이 애착의 기본 개념이지만, 이와 더불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자아상의 개념이 애착의 구성개념 중 일부 포함되기 때문에, 자기 개념은 애착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애착유형과 자기 개념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을 때, 실제로 이 두 개념은 높은 상관성이 있어서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개념과 같은 개인의 내적, 심리적 변인은 주로 매개변인으로 설정되며(장휘숙, 1994), 이러한 변인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고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연결되는가를 안다면 보다 정확하게 신체화의 기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가정 하에 애착과 신체화경향성에서 자기개념들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가를 알아보았을 때, 자기개념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안정성이 완전 매개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애착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통하여 신체화 경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결국 자기개념의 여러 하위요인 중 정서적 안정성과 불안애착의 관련성이 가장 긴밀하며, 이를 통해 신체화 증상이 더욱 크게 발현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사람일수록 감정조절능력이 떨어진다는 Waller와 Scheidt(2004)의 연구결과나 불안정애착자일수록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기분이나 상황에 압도되어 강박적으로 불안감을 느낀다는 이은정(2001)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겠다.

상기의 결과를 고려할 때, 감정조절능력이 신체화 기제와 가장 높은 관련성을 가진 변인이며 불안애착은 감정조절 능력을 통하여 신체화 경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체화 경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치료와 예방에서 감정조절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아개념의 다른 하위유형 중 대인관계를 제외하고 대인신뢰감, 자아존중감, 문제해결, 자아개념총합이 부분적으로 불안애착과 신체화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희, 오경자, 박중규, 이은정(2001)의 연구에서도 불안-양가애착집단이 안정애착, 회피애착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았고, 긍정적인 사건은 우연으로 귀인하고, 부정적 사건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불안애착 유형은 친밀한 관계를 원하면서도 이에 대해 양가적인 태도가 우세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자기확신과 자기주장성이 떨어지며(Collins & Read, 1990), 자기가치감이 빈약하고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안정애착자에 비해 자아관련개념이 부정적일 것이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한편 이들이 어느 정도 대인관계에서의 친밀감에 대한 욕구로 인하여 외면상 사교적일 수 있겠으나, 안정 애착자에 비해 타인의 의도에 대한 의심이 지배적이며, 타인을 이해하기 어렵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관점이 우세하다는 결과(Hazan & Shaver, 1987)는 본 연구에서 대인신뢰감이 불안애착자에서 유의하게 부적으로 작용한다는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끝으로 불안애착이외에 친밀애착이나 의존애착은 신체화 현상과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자기개념은 불안애착과 부적인 상관을 가지고 있고 이외에 친밀애착, 의존애착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은 친밀애착과 의존애착을 많이 보일 것이며 이들간의 관련성을 후속 연구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는 몇가지 제한점이 있는데, 현재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보고식 애착질문지의 경우, 애착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회피형 애착은 제외되었다는 점과 자기보고에 따른 방어적 태도를 보완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심층면접을 통한 애착유형의 분류가 더욱 유용할 것으로 보이며, 후속 연구에서 이를 제안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김선희, 오경자, 박중규, 이은정 (2001). 애착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 인지적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 1, 105-119.

- 김정규(1999). **성신자기개념검사**. 서울: 가이던스.
- 김민동(2003). **애착유형과 자기개념, 우울 및 불안과의 관련성**.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 김지현(1999). **성인초기 애착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자기가치감**.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 문미희, 최정윤(1996). 신체증상을 주소로 하는 정신과 환자집단의 방어기제 특성.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5, 117-127.
- 이기련, 이영호(2003). 신체형장애 환자들의 질병행동 특성.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2, 57-70.
- 이은정 (2001). **애착에 따른 이성간 지지행동의 차이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장휘숙(1998). 애착과 정신증의 관계에서 자기관련적 변인의 중재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 110-121.
- Ainsworth, M.D., Blehar, M.I., Waters, E., & Wa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Lawrence Erlbaum, Hillsdale, NJ.
- Barsky, A., & Klerman, G.(1983). Overview: Hypochondriasis, bodily complaints, and somatic styl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0, 273-283.
- Batholomew, K., & Horowitz, L.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aron, R. & Kenny, D.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ion, W.R. (1959). Attacks on lin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40, 308-315.
- Bowlby, J. (Ed)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 Brown, R. (2004). Psychological mechanism of medically unexplained symptoms. *Psychological Bulletin*, 130, 793-812.
- Bridges, K., & Goldberg, D. (1992). Somatic presentation of depressive illness in primary care. *Journal of the royal college of the general practitioners*, 36, 9-11.
- Ciechanowski, P., Katon, W.J., Russo, J.E., Walker, E.A. (2001). The patient-provider relationship: Attachment theory and adherence to treatment in diabet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 29-35.
- Collins, N.L. & Read, S.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Dozier, M., Stovall, K., & Albus, K. (1999).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in adulthood. In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ed. J. Cassidy and P.R.Shaver, pp. 497-519. New York: Guilford.
- Eagle, M. (1999). *Attachment research and theory and psycho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Psychoanalytic Association of New York, November 15.
- Escalona, R., Achilles, G., Waitzkin, H., & Yager, J. (2004). PTSD and somatization in women treated at a VA primary care clinic. *Psychosomatics*, 45, 291-296.
- Feeney, J., Noller, P., & Patty, J. (1993). Adolescents' interactions with the opposite sex influence of attachment style and gender. *Journal of Adolescent*, 16, 2, 169-186.
- Fonagy, P., Gergely, G., Jurist, E., & Target, M. (2002). *Affect regulation, ment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ITC
- Ford, C. (1986). The somatizing disorders. *Psychosomatics*, 27, 327-337.
- Grabe, H., Spitzer, C., & Freyberger, H. (2004). Alexithymia and personality in relation to dimension of psychopatholog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1, 1299-1301.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Katon, W., Kleinman, A., & Rosen, G.(1982). Depression and somatization: a review. *American Journal of Medicine*, 72, 127-135.
- Kiesler, D.J. (1996). *Contemporary interpersonal theory and research: Personality, psychopathology, and psychotherapy*. New York: John Wiley & Sons.
- Phillips, K.A., Siniscalchi, J., & McElroy, S.L. (2004). Depression, anxiety, anger, and somatic symptoms in patient with body dysmorphic disorder. *Psychiatry Quarterly*, 75, 309-320.
- Main, M., & Goldwin, M. (1984). Predicting rejection of her infant from mother's representation of her own exper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Abuse and Neglect*, 8, 203-217.
- McCoubrie, M. (2004). Personality disorder and somatization. *Journal of Research and Social Medicine*, 97, 506-507.
- Scicchitano, J., Lovell, P., Pearce, R., Marley, J., & Pilowsky, I., (1996). Illness

- behavior and somatization in general practic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41, 3, 247-254.
- Sherman, J., LeResche, L., Huggins, K., Mancl, L., Sage, J., & Dworkin, S. (2004). The relationship of somatization and depression to experimental pain response in women with temporomandibular disorders. *Psychosomatic Medicine*, 66, 852-860.
- Shur, M. (1955). Comments on the metapsychology of somatization.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10, 119-164.
- Tasca, G., Taylor, D., Ritchie, K., & Balfour, L.(2004). Attachment predicts treatment completion in an eating disorders partial hospital program among women with anorexia nervosa.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3, 3, 210-212.
- Trimble, M. (2004). *Somatoform disorders*. Cambridge.
- Waller, E., & Scheidt, C. (2004). Somatoform disorders as disorders of affect regulation.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7, 239-247.
- Waller, E., Scheidt, C., & Hartmann, A. (2004). Attachment representation and illness behavior in somatoform disorder.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2, 3, 200-209.

## The mediating roles of self-related variables in relation between attachment and somatization

Yong-Hee Kim

Department of psychiatry, Kyunghe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 of attachment type and somatization, and whether the self-related variables, self-esteem, emotional unstability, interpersonal trust, interpersonal relation problem, problem solving, mediate the relation between attachment and somatization. As a result, anxious attachment style is significantly related to somatization. And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among the self-related variables, emotional stability is the full

mediating variable in the relation between attachment and somatization. Limitation of these studies and further study directions were also discussed.

Keywords: somatization, anxious attachment, self-related variables, emotional stability

K C I